

근대 조선인노동자의 덕목(ethos)*

-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과 최남선의 『자조론』, 1908~1918 -

선 재 원**

요 약

근대 조선인노동자에게 제시된 대표적인 덕목인 '자조'는 자본주의 성숙기의 영국, 메이지유신기의 일본, 개항이후의 조선에서 각각 탄생되고 확산되었다. 영국에서 탄생된 '자조론'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보적 자유주의와 그 근본철학인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었다. 구체제가 붕괴된 메이지시대 일본에서는 신체제 형성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여졌다. 열강의 지배가 확산되고 있었던 조선에서는 처음에 국가자강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회'형성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여졌다.

한국 최초의 노동자자율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 기관지 '공제(共濟)'에서 제시한 조선인 노동자가 추구해야할 덕목 중에 '노동존중'과 '자조'는 유길준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다. 유길준은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인간은 존엄하고, 일의 형태와 상관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노동은 신성하며,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자유를 누려야하고, 신뢰와 질서와 경쟁에 기초한 노동자규율을 강조하며 이러한 덕목은 자조를 통해 실현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발적인 개인의 연대인 '사회'를 전제로 하는 '자조'는 유길준에 의해 제시되지 않았고, 최남선의 '자조'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제시되었다. 개인만의 성공이 아닌 자발적 개인의 연대인 '사회'를 전제로 하는 '자조'가 전제되어야 '사회적 헌신'의 덕목이 성립된다. 즉 한국 최초의 노동자자율단체 조선노동공제회의 기관지인 '공제'에서 제시한 '노동존중', '자조', '사회적 헌신'이라는 근대 조선인노동자가 추구해야할 덕목은 유길준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고, 최남선에 의해 완결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근대, 조선인노동자, 덕목, 유길준, 최남선, 노동존중, 자조, 사회적 헌신

* 이 논문은 2020년 산업사연구회 토론회 본 학술지 익명의 심사의견에 의해 개선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평택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sun@ptu.ac.kr.

I. 서 론

본 논문의 목적은 1920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 노동자자율단체¹⁾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가 제시한 노동자의 덕목(ethos) ‘노동존중, 자조, 사회적 헌신’의 사상사적 배경을 분석하는 것이다.²⁾

조선노동공제회는 첫째, 당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노동신성주의에 기초하여 ‘일하는 것은 성스러운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통적으로 천시되어왔던 노동 특히 육체노동에 대한 멸시를 비판하여 ‘노동존중’이라는 새로운 덕목을 제시했다. 둘째, ‘일하는 것은 스스로 독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자조’를 새로운 노동자의 덕목으로 제시했다. 셋째, 노동이 개인적인 경제적 지위향상의 추구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인격가치를 인식하고 유지하는 것을 통해 건강한 사회가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헌신(social service)’ 행위라는 새로운 덕목을 제시했다.

김현주(2008)는 ‘노동(자)’라는 용어에 대해 번역어로 등장한 1890년대 후반부터 시기별 해석을 시도한 결과,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의 창립취지서에 관한 동아일보 사설에서 ‘노동(자)’라는 용어가 개인-사회-국가라는 개념체계 속에서 안착되었고 ‘시민권’도 얻었다고 보았다(김현주 2008: 44, 61-71). 이 연구는 노동운동이 고양되는 1920년대 이전의 노동(자)에 대한 사상사적 배경을 분석한 뛰어난 연구로 본 논문구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유길준(兪吉濬)이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에서 ‘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국가와 구별되는 자발적인 개인의 연대라는 ‘사회’를 언급한 것은 아니기에, 『노동야학독본』에서 모든 논의는 가족-국가-사회라는 개념체계 안에서 전개된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조경달(2012)은 통속도덕인 ‘근검사상’이 근대 조선민중에게 확산되고 내면화되는 과정을 밝혔다. 특히 개화사상가인 유길준이 1908년에 『노동야학독본』을 간행하여 근검사상을 확산시킨 점에 주목했다(조경달 2012: 64). 유길준이 직업의 귀천을 명확히 부정했고, 직업윤리와 애국사상을 결합시켜 직업관을 천직이 아닌 국직으로 규정했으며, 근검사상 등 통속도덕에 대한 그의 주장(조경달 2012: 70)에 동의한다. 그러나 노동관에 대한 계몽이 충분히 침투되지 않아 조선인의 노동관이 유민형에서 근검형으로 전환되지 못한 상태에서 식민지화되었다고 평가한 점에 대해서는 1910년대 이후의 변

1) 대한제국정부와 통감부가 발주한 도로수리, 준설, 위생업무 등 관급공사를 위한 노무공급조직이었지만 일반노동자로 구성된 ‘평의회’의 임원 선출과 해임 등의 조직운영행위, 임금체불과 중간착취에 항의하여 경찰서나 헌병대에 고소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던 대한제국말기 과도적 노동단체로 1908년에 설립된 ‘노동회’가 존재했었다(윤진호 2012).

2) 선재원 2005: 66-70. 이하 조선노동공제회에 관한 서술은 같은 인용.

화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최희정(2004; 2020)은 일제시대 자조론에 관한 가장 체계적인 연구이고, 본고의 최남선(崔南善)의 『자조론』에 대한 이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자조론의 역할이 1930년대 개인성공이라는 좁은 의미의 입신출세론으로 급격히 축소되었다고 강조하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한편 김남이(2010)와 김남이·하상복(2010)은 최남선의 『자조론』이 개인 입신출세의 가치를 유포하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김남이·하상복 2010: 240).

본고에서는 이러한 유길준(兪吉濬)의 『노동야학독본』과 최남선(崔南善)의 『자조론』에 관한 기존연구를 계승 비판하며 한국 최초 노동자자율단체 조선노동공제회가 제시한 노동자의 덕목(ethos) ‘노동존중, 자조, 사회적 헌신’의 사상사적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자조론’의 탄생과 확산

1. 진보적 자유주의와 공리주의

『Self-Help』(자조론)은 1859년에 초판, 1866년에 개정판이 출판된다. 개정판 제1장 국가와 개인(National and Individual)의 첫머리에 ‘장기적으로 국가의 가치는 개인 총합의 가치로 이루어진다(The worth of a State, in the long run, is the worth of the individuals composing it)’라는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이하 밀)의 말이 인용되어 있다.³⁾

진보적 자유주의의 시초이자 대표자인 밀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빈부격차 실태를 직면하여 자본주의시장경제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했다(이근식, 1999: 155-160).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자연적 자유의 질서인 효율적인 시장경제질서가 저절로 형성되어 자본주의경제는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발전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밀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경제가 최초로 확립된 빅토리아 여왕시대(1837~1901)에 상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노동자들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진보적 자유주

3) 본 논문에서 새뮤얼 스마일즈(Samuel Smiles)의 『Self-Help』(자조론) 관련하여 사용된 문헌은 다음과 같다. 영어판: John Murray 출판사 1902년판, Peter W. Sinnema 편집 및 소개 2002년판; 일본어판: 中村正直 역 博文館 1926년 개정판, 中村正直 역 講談社 1991년판, 中村正直 역 渡部昇一·宮地久子 현대어역 2009년판, 畔上賢造 역 1906년판, 竹内均 역 2002년판; 한국어판: 崔南善 譯說 1918 국한혼용문판, 장만기 역 2006년판.

의사상은 영국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번성기에 싹트던 것이다.

밀의 철학적 기초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즉 인류 전체의 행복증진이 궁극적인 목적인 공리주의(公利主義,⁴⁾ Unitarianism)이다. 그의 공리주의 철학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벤담(Jeremy Bentham)은 사회개혁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다(이근식, 1999: 173). 벤담이 주장한 주요 사회개혁은 무료교육, 질병수당, 노년보험, 최저임금제, 정년보장취업, 연좌제 금지, 절차와 증거에 의한 재판 등이었다. 밀은 모든 학문이 학문 자체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회진보에 기여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밀의 실천의지는 공리주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다.

2. 새뮤얼 스마일즈(Samuel Smiles)의 『Self-Help』(1859)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마일즈는 벤담사상의 영향 아래 합리적인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의 도래를 열망했다(이영석, 1993: 320-322). 그는 차티스트운동이 약화되는 1840년대에 공리주의에 바탕을 둔 개혁활동의 하나로 야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호향상회’와 같은 소모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점은 정치개혁활동에 참여했다가 『노동야학독본』과 같은 계몽서 발간과 계몽활동을 했던 유길준과 비슷하다. 그는 ‘상호향상회’에 모이는 청년들의 요청으로 개인의 자존과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자기합양의 길에 대해 강연을 거듭했다. 그 강연록을 모은 것이 1859년에 출판한 『자조론』이다(〈표 1〉). 스마일즈에게 영향을 미친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저작인 ‘자유론(On Liberty)’이 같은 해에 출간되었다.

자조론은 단순히 입신출세를 위한 방법으로서의 자조가 아니라 인간정신의 발전을 위한 자조였다. 즉 ‘열심히 일하여 빈곤을 벗어나라는 충고 이상의 어떤 것’으로 ‘건전, 절제, 극기, 자기해방을 지향하는 인간의 진보’를 위한 것이었다.

3.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의 『西國立志編』(1871)과 아제카미 겐조(岸上賢造)의 『自助論』(1906)

Self-Help의 번역서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1832~1891)의 『西國立志編』은 후쿠자와의 『학문의 권유(學問のすすめ)』보다 5개월 먼저 1871년 9월에 출판되었다. 『西國立志編』가 메이지시대의 성서라고 할 만큼 『학문의 권유』가 인기가 있었다.⁵⁾ 한

4) Unitarianism이 흔히 功利主義로 번역되지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뜻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公利主義로 쓴다(이근식, 1999: 173).

5) Kinmonth(広田照幸, 역 1995) 23-24(역서 쪽수, 이하 같음).

〈표1〉 자조론의 탄생과 확산

	영국	일본	조선
1792	London Corresponding Society 창립		
1836	차티스트운동 시작		
1859	Self-Help(S. Smiles)/ On Liberty(J.S.Mill) 출판		
1866	Self-Help 개정판		
1871		西國立志論(Self-Help) 출판[中村正直역]	
1872		自由之理(On Liberty)/ 學問의 勸誘[福沢諭吉] 출판	
1875		자유민권운동 시작	
1894			동학농민운동 시작
1897		勞動組合期成會 창립	
1906		自助論(Self-Help) 출판[畔上賢造역]	自助論(Self-Help) 번역시작[崔南善]
1908			勞動夜學讀本[유길준] 출판
1918			自助論(Self-Help)上 출판[崔南善역]
1919			3.1운동
1920			朝鮮勞動共濟會 창립
1920			自助論(Self-Help)下 완역[崔南善], 미출간
1931			自由論(On Liberty) 소개

자료 : 동아일보 1931.3.9.; Cole(1948) 137-174; 高橋昌郎(1988); 中村隆英(2015) 207-9.

편 영국의 주요 독자는 부르주아와 상층노동자층이었지만, 일본의 주요 독자는 관리와 교원 등을 포함한 무사계층이었다. 그래서 나카무라는 ‘Self-Help’를 독자층인 무사들이 평소 추구해야할 덕목으로 지향하고 있던 ‘입지’에 초점을 맞추어 ‘서쪽나라의 입지’로 번역하여 이해를 도왔다.

『西國立志編』이 일본 주요 독자층인 사무라이계층에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일본의 전통적인 통속도덕과 친밀했기 때문이다(Kinmonth(広田照幸, 역 1995) 38-39). 당시

일본의 통속도덕의 지침이었던 ‘유학(儒學)’은 개인의 노력을 강조했다. 따라서 나카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를 얻는 단위가 ‘개인’이라고 생각했던 스마일즈의 주장을 독자층에 잘 전달할 수 있었다.

아제카미 켄조(岸上賢造, 1884~1938)는 1906년에 Self-Help를 『自助論』으로 번역했다. 아제카미는 제목만이 아니라 ‘National and Individual’을 ‘방국(邦國)과 인민’으로 번역한 나카무라와 달리 ‘국가와 개인’으로 번역했다.⁶⁾ 메이지시대를 거쳐 ‘Nation’이 ‘국가’로 ‘Individual’이 ‘개인’으로 정착되어 갔다(최희정 2020: 20).

4. 노동자 자율단체의 성립과 덕목의 확산 : 영국, 일본, 조선

각 나라에서 최초 노동자자율단체의 성립시기와 자조론을 비롯한 노동자 덕목의 확산과정이 다르다.

영국 최초의 노동자자율단체인 ‘London Corresponding Society’는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었던 1792년에 창립했다. 이후 산업혁명의 성과와 권리가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자 노동자권리획득운동인 차티스트운동이 1836년경부터 전국으로 확산되었다(Cole 1948: 137-174). 신분제 구속의 옛날 관행에서 벗어나 노동자 권리획득의 능력과 의지를 높이려는 야학운동과정에서 탄생한 스마일즈의 ‘자조론’이 1859년에 간행되었다. 같은 해에 산업혁명과정을 거치며 고전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인식하여 개인자유와 권리를 공공의 차원에서 보장해야한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간행되었고, 스마일즈의 ‘자조론’ 개정판(1866)에 밀의 ‘자유론’이 인용되었다.

일본 최초의 노동자자율단체인 ‘노동조합기성회(勞動組合期成會)’는 스마일즈의 ‘자조론’과 밀의 ‘자유론’이 출간되고 ‘자유민권운동’(1872)이 시작된 후인 1897년에 창립되었다. 이 단체는 산업혁명의 경제적 정치적 성과배분에 관한 불공정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획득을 요구한 영국과 달리, 정치적 권리에 요구가 집중되었고 주체세력이 운동가들과 농민이었다는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활동했다. 또한 차티스트운동이 ‘자조론’과 ‘자유론’에 영향을 미친 것과는 달리, ‘학문의 권유’와 더불어 ‘자조론’과 ‘자유론’이 자유민권운동의 전개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다르다.

조선 최초의 노동자자율단체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는 신분제 구속의 옛날 관행 타파를 위한 ‘동학농민운동’(1894)과 인류의 보편적 권리 및 나라의 독립을 요구한 ‘3.1운동’(1919)의 영향을 받아 1920년에 창립되었다. 조선노동공제회는 스마일즈의 ‘자조론’과 인류의 보편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산시키기 위해 간행된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1908)의 주요주장을 받아들여 확산시켰다.

6) 中村正直 역 1926년판, 岸上賢造 역 1906.

이상과 같이 근대노동자의 대표덕목인 ‘자조’가 영국에서는 최초 노동자자율단체가 성립되고 노동자권리획득운동인 차티스트운동이 전개된 뒤에 확산되었고, 일본에서는 번역출판으로 먼저 확산되기 시작하고 민중권리획득운동인 자유민권운동이 전개된 뒤에 최초 노동자자율단체가 성립되었다. 조선의 경우 민중권리획득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고 번역출판되어 확산된 뒤에 최초 노동자자율단체가 성립되었다.

III.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 1908

1. 유길준과 『노동야학독본』

유길준(1856~1914)은 실학자로서 개국을 주장한 박규수(1807~1877)의 권유로 어윤중(1848~1896) 수행원으로 신사유람단에 참가해 일본에 건너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가 경영하는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 유학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1882년 임오군란이후 학업을 중단하고 1883년 1월에 귀국하여 『한성순보』를 발간하려했으나 순탄치 않자 같은 해 7월 보빙사(報聘使) 민영익 수행원으로 미국에 건너갔다. 일본에서 알게 되었으며 다윈의 진화론을 일본에 처음 소개한 모스(Morse, E. S.)를 그곳에서 만나 개인지도를 받았으며 고등학교에도 입학했다. 1884년 갑신정변 실패 소식을 듣고 학업을 중단하여 유럽 각국을 순방한 뒤에 1885년 12월에 귀국했다. 유길준은 김옥균, 박영효와 함께 박규수의 제자였기에 갑신정변 주모자로 간주되어 1892년까지 연금생활을 하였는데 그 기간에 집필한 책이 『서유견문』(1895년) 이었다. 유길준은 1894년 친일내각에 참여하여 갑오개혁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고, 갑오개혁 실패이후 일본으로 망명했으나 쿠데타가 발각되어 일본정부에 의해 유폐되었다가 1907년에 귀국했다. 유길준은 정치개혁에서 계몽운동으로의 전환점에서 『노동야학독본』을 발간했던 것이다.

『노동야학독본』은 1905년 경 급증한 보통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위해 운영한 야학에서 사용할 교과서로 간행되었다(조윤정, 2013: 407-408).

2. 노동자의 존엄

1) 인간존엄

유길준은 ‘독본’의 첫머리에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신령하다.’고 한다(1과).⁷⁾ 그 이유는 사람이 도리, 권리, 의무, 자격, 직업에 대해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의 도리는 가족, 사회, 국가의 윤리를 지키고 기강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지켜지며, 잘 지키면 어진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2과). 사람의 권리는 자신의 하는 일을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3과). 자신의 권리는 남에게 절대 사양하지 말고 남의 권리는 절대 침범하지 말 것이며, 한 사람의 권리를 지켜야 한 나라의 권리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람의 의무는 직분을 지키는 것으로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며 어른으로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한다(4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은 태어나며 주어진 신령한 성품을 가진 지위 즉 자격이 있으나,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어리석은 동물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5과). 사람의 직업은 사람의 생애와 같아 직업 없는 사람은 목숨이 있어도 생애가 없는 것이며, 나라는 직업 있는 자가 많으면 번성하고 적으면 쇠락한다고 한다(6과). 정신으로 일하는 직업과 육체로 일하는 직업이 있으나 직업에는 귀천이 없기에 ‘총리대신’으로 일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등짐꾼’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한다. 따라서 직업이 사람에게 중요하나 ‘직업이 사람을 구함이 아니오 사람이 직업을 구함’임을 강조한다.

2) 노동존중

유길준은 노동을 ‘박한 일’이라는 의미의 정업(定業)과 ‘편 일’이라는 의미의 잡업(雜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16, 17, 18과). 정업노동으로는 농업, 잡업, 축산, 임업, 수산업 등의 ‘농사노동’, 목수, 미장, 도공, 대장장이, 석공, 직공 등의 ‘공장노동’, 보부상 등의 ‘부상노동’, 뱃사람, 사냥꾼, 어부, 백정 등의 ‘특별한 지각과 한정 있는 노동’이 있다고 한다. 잡업노동은 모내기꾼, 품팔이 등의 ‘시간별이 노동’이라고 한다. 정업이든 잡업이든 ‘정직’, ‘성실’, ‘근면’하게 일하도록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정직’함은 ‘일을 이루는 근본’이고, ‘사람이 비록 가난하여 노동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을 정직하게 가지고 분수에 상당한 값을 구하면 즐겨 부리는 자가 자연히 많으니 진실로 이러하면 나의 별이가 잘 될 것’이라 한다(19과). ‘성실’함이란 ‘한 돈 품삷 받거든 그 값어치 정성으로 하고 한 량 품삷 받거든 그 값어치 진실하게 하여 샅대로 일을 하되 주인이 보거나 말거나 일꾼을 거느리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내 나라 사람의 일이거나 외국 사람의 일이거나 내가 맡은 역사는 나 할 도리대로 밤이나 낮이나 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심정력 들여서 정한 시간 어기지 말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한다(20과). ‘근면’하게 일하지 않으면 ‘게으르고 놀고 남의 지은 밥만 먹으며

7) 유길준 1908(조윤정 편역 2012). 이하 같음.

남의 지은 옷이나 입는 자'가 되며 '나라의 좁이며 사회의 도적'이라고 한다(21과).

그러므로 유길준은 노동이 국가와 사회의 근본이며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사회를 문명화시킬 수 있기에 '거룩'하다고 한다(22과).

3) 도덕적 자유

유길준은 '세상일의 뼈대'인 '도덕'에 어긋나면 국가의 부강과 사회의 문명이 참되지 못하다고 강조한다(33과). 도덕은 부모 자식 간 효도와 형제 간 우애와 같은 사적 도덕과 자선사업을 도우고 공중이익을 중시하는 공적 도덕으로 나뉜다고 한다. 도덕은 법률과 같이 강제성을 띄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한다.

자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나, 도덕과 법률의 규제를 받기에 '자유는 자유롭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34과). 내가 자유가 있는 만큼 남도 자유가 있으니 각각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만 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다툼이 끊이지 않아 '짐승의 자유'만 있을 것이라 한다. 따라서 말의 자유와 일의 자유는 남에게 방해되지 않을 때에 내가 하고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남의 방해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4) 노동자 규율

유길준은 상조(相助) 즉 분업(分業)이 성립되려면 문명과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팔고 사는 매개가 되어 만물의 가치를 정하는 표준'인 '돈' 또는 '재물'을 가버이 여기지 말아야한다고 한다(35, 36, 37과). 그리고 '검약'하는 생활을 공들여 습관화하고 '저축'하여 안락한 생애를 보내야한다고 한다.

노동자는 적은일이든 큰일이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신뢰'를 지켜야하며, 남을 속이지 않고 불신을 배척하는 '진언(眞言)'을 해야 한다고 한다(38, 39과). 또한 기금을 마련하여 재난 당했을 때 남의 도움을 받기 전에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선(慈善)'을 베풀어야하고,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여 전염병을 예방해야한다고 한다(40, 41과).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뉘우치고 새롭게 결단하는 '용기'를 가지고 '단합'해야 한다고 한다(42, 43과).

유길준은 노동자들에게 '외국사람 물밑 듯이 오는 세상'에서 '욕심내며 닥치면 가져가니' 케케묵은 선비 '옛사람의 찌꺼기는 이 세상에 쓸데없다. 새 학문을 닦지 아니하면 네 노릇은 남의 종 될 뿐'이라고 지적하며 '살려거든 죽기를 무릅쓰자'고 '분발'을 촉구했다(44과). 사람이 태어나면서 '하늘에서 받은 권리가 처음에는 비록 평등'하지만 '제 손으로 만든 지위는 사람마다 다르니 귀한 자가 있으면 천한 자도 있으며 부자도 있으면 가난한 자도 있다'고 하며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는 사회'질서'를 강조했다

(45과).

유길준은 ‘품팔이라도 하여 나 사는 방법을 내가 세우면’ 그 누구도 자신의 ‘자유’를 빼앗지 못할 것이라 한다(46과). 그는 ‘사람이 능히 그 한 몸의 독립을 지켜야 그 나라의 독립을 보전할 수 있으니 나라사람이 다 “독립”하는 사람이 된 후에야 국가의 “독립”을 온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내가 남보다 나으려고 하여 잘 하기를 힘쓰는 일’이 ‘경쟁’이고, ‘공연히 사람보고 서로 다투라 함이 아니’며 ‘서로 다투지 아니하면 천만사물의 경황이 뒷걸음질 친다’고 한다(47, 48과). 그는 ‘경쟁하는 일이 없으면 사람의 세상이 다시 야만시대가 되니 세계의 진보는 경쟁에 있다’고 강조한다.

5) 자조

유길준은 ‘독본’의 마지막 과 ‘자조’에서 새뮤얼 스마일즈(1812~1904)의 Self-Help (1859) 본문 첫머리에 적혀있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는 격언을 거론한다(50과). 이는 ‘고기를 잡고자 하면 그물을 가지고 물에 들어가며 나무 하려거든 도끼를 메고 산에 올라야 한다’는 비유로 ‘사람이 스스로 도운 후에 남이 도우니 하늘이 스스로 돕지 아니하는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그는 ‘자조’가 ‘농부가 장인의 물건을 사니 이는 장인이 간접으로 농부를 도움이요 장인이 농부의 곡식을 사니 이는 농부가 간접으로 장인을 돕는 것’이라는 노동성과 상호교환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IV. 최남선의 『자조론』 1918

1. 최남선 자조론 ‘역설(譯說)’

자조론의 원저자 스마일즈는 남부 스코틀랜드에서 제지업과 도매업을 하는 집안출신이고,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소개하는 저술가로 활동했다(류시현 2009: 88). 나카무라는 하층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나 도쿠가와막부의 유학생단 감독으로 임명되어 1867년에 영국에 건너가 1868년에 귀국하여 출판인과 번역가로 활동했다(최희정 2004: 10; 류시현 2009: 88). 최남선(1890~1957)은 중인출신으로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고 1906년에 일본 와세다대에 입학하여 대한유학생회보(大韓留學生會報) 편집인으로 활동했다. 1907년 와세다대 정치학과가 조선국왕이 일본천황을 알현하는 가상 상황을 주제로 모의국회를 개최하려하자 항의하는 한국인 유학생의 총대를 맡았으나 퇴학당했다(류시현 2009: 8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최남선은 유학당시인 1906년부터 ‘자조론’ 번역을 시작했고, 귀국한 뒤에 출판사 신문관을 설립하여 『소년(少年)』(1908)을 창간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최남선은 출판활동을 시작으로 신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조선의 ‘신청년’ 계몽운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나카무라의 번역 직후부터 ‘자조론’을 접했으리라 예상되지만, 문헌으로 확인되는 것은 1906년부터이다(최희정 2004: 17). 최남선은 1908년에 Self-Help의 13장 중 6장까지를 번역하여 『자조론』상권을 출간했다. 후반부는 독립선언서 작성으로 투옥되었을 때 번역했으나 출간하지 않았다(〈표 1〉). 최남선은 한글 번역본의 체제는 나카무라 번역본을 따르고 내용은 아제카미의 번역본을 따랐다고 판단된다(최희정, 2004: 50). 나카무라의 『西國立志編』도 Self-Help를 직역하지 않고 번역과 설명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주장했지만, 최남선의 『자조론』은 더욱 자신의 사상을 강하게 주장한 ‘역설(譯說)’ 서였다.

최남선의 『자조론』상권은 총 287쪽 중 스마일즈 저술 원본은 227쪽(79.1%), 나카무라의 해설은 4쪽(1.4%), 최남선의 해설은 56쪽(19.5%)이었다. 최남선 해설은 자조론서(自助論序), 역사조론서언수칙(譯自助論叙言數則), 제1장부터 제6장까지의 각 장의 머리말(弁言)로 구성되어 있다(崔南善 譯說 1918). 최남선은 자신의 주장과 스마일즈의 원본 번역을 통해 사회적 진보를 위한 슬로건으로서의 ‘자조’를 강조했다.

2. 진보를 위한 덕목 ‘자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라는 널리 알려진 문구는 ‘자조론’ 본문 첫머리를 장식한다(Smiles, 1902: 1). 이 문구는 자조(Self-Help)의 의미를 간결하게 잘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문구와 개인의 성공이 주요내용인 자조론은 개인의 물질적 성공만을 강조했다라는 비판을 받았다(김남이·하상복, 2010: 258-260). 그러나 저자인 스마일즈는 당시 진보적인 잡지인 리즈타임즈(Leeds Times)의 편집에 참여했고, 노동계급의 협동과 공동참여를 모색하는 리즈 소비조합(Leeds Redemption)을 긍정적으로 인정했으며, 공공교육 및 공공의료 등의 개혁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중산계급 급진주의 좌파’로도 불렸다. 당시 사회주의 계열에 영향력이 있었던 잡지인 메리 잉글랜드(Merrie England)를 편집하고 출판한 로버트 블래츠포드(Robert Blatchford)는 스마일즈를 비난한 동료 사회주의자들에 대해 비판하며 노동계급 대중에게 ‘자조’의 정독을 권유했다.

자조론은 제1장부터 마지막 제13장까지 비 귀족계급 출신으로 근면, 노력, 성실, 절제를 통해 자기발전을 이룩한 3백 명 이상의 혁신적인 과학발명가, 사업가, 예술가 등

의 빅토리아시대 ‘영웅’이 소개되어있다(이영석, 1993: Kinmonth(広田照幸 역 1995) 27). 제1장(자조 : 국가와 개인)의 경우에는 이발사 출신 신학자, 벽돌공 출신 건축가, 직포공 출신 수학자, 제화공 출신 해군제독, 재단공 출신 역사가, 직공출신 의원 등의 자기발전 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최남선은 스마일즈가 이 소개를 통해 ‘국가의 쇠퇴가 개인의 나태, 이기심, 악덕 때문이듯이 국가의 진보는 개인의 근면, 정력, 덕행의 총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남선은 스마일즈가 개인의 노동에 의해 진보가 달성된다고 주장한 점을 강조한다(이영석 1993: 324). ‘사람이 먹는 빵 가운데 어느 것도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그 자신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빵만큼 맛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노동에 의해서 대지가 개척되었으며 인간은 야만에서 벗어났다. 노동이 없이 문명은 한결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노동은 긴요한 것이고 의무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다. 오직 게으른 사람만이 그것을 고통으로 느낀다.’ 그는 근면하게 노동을 해야 개인의 열성과 인내가 생겨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노동이 최고의 지적 문화와 양립 가능하다고 한다. 스마일즈는 이러한 노동행위가 자조를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3. 개인과 사회

한말 지식인들은 ‘자조론’ 번역과정에서 소개된 ‘자조’의 개념을 대한제국의 ‘자강’ 독립 또는 자립의 논리로 공론화시켰다(최희정 2004: 36). 입헌군주론에 입각한 유길준은 개인의 노동행위가 자조를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대한제국의 자강에 근간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길준은 군주에 대항하는 시민사회를 상정하지 않았다. 한편 스마일즈는 무엇보다도 인격을 고양해야 세속적 성공도 가치가 있으며, 가장 고양된 의미에서 개인의 자조에 대한 의무는 이웃의 자조를 필연적으로 포함한다고 주장했다(김남이, 하상복 2010: 256-257).

최남선은 이러한 스마일즈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유길준과는 달리 ‘자조론’에서 사회적 진보가 가능한 자유로운 개인을 강조했고 그 연합에 의한 ‘사회’를 강조했다. 즉 최남선은 번역이 아닌 자신이 작성한 제1장과 제3장 머리말(弁言)에서 각각 ‘自身을 自修치 못하고 自家를 自濟치 못하고 自事를 自辨치 못하고 自計를 自立치 못할진대 그 影響이 如何할가. 個人의 集合으로 社會가 成立하니 社會의 隆替는 實 個人狀態의 總計라.’(崔南善 譯說, 1918: 1-2), ‘個人의 狀態가 進歩의이오 昌泰치 아니하는 社會가 無하며 個人의 營作이 進取의이오 富榮치 아니하는 社會가 無하니 一人이 邦을 喪하게하며 興하게 한다함이 此를 謂함이라.’(崔南善 譯說, 1918: 82)와 같이 자신의 언어로 개인역량의 총합에 의해 사회의 성쇠가 결정되고 개인이 진보적 또는 진취적 여

부에 따라 사회의 성패여부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최남선은 일본에서와 같이 공교육과의 공조 속에서 위상을 갖기 어려웠지만 이상과 같이 ‘자조론’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의 개념을 자신의 사상으로 확립시켜 자신이 발간하는 잡지 등을 통해 보급하려 노력했다(김남이, 하상복 2010: 262-263).

V. 결 론

근대 조선인노동자에게 제시된 대표적인 덕목인 ‘자조’는 자본주의 성숙기의 영국, 메이지유신기의 일본, 개항이후의 조선에서 각각 탄생되고 확산되었다. 영국에서 탄생된 ‘자조론’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보적 자유주의와 그 근본철학인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었다. 구체제가 붕괴된 메이지시대 일본에서는 신 체제 형성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여졌다. 열강의 지배가 확산되고 있었던 조선에서는 처음에 국가 자강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회’형성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여졌다.

한국 최초의 노동자자율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 기관지 ‘공제’에서 제시한 조선인노동자가 추구해야할 덕목 중에 ‘노동존중’과 ‘자조’는 유길준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다. 유길준은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인간은 존엄하고, 일의 형태와 상관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노동은 신성하며,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자유를 누려야하고, 신뢰와 질서와 경쟁에 기초한 노동자규율을 강조하며 이러한 덕목은 자조를 통해 실현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발적인 개인의 연대인 ‘사회’를 전제로 하는 ‘자조’는 유길준에 의해 제시되지 않았고, 최남선의 ‘자조’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제시되었다. 개인만의 성공이 아닌 자발적인 개인의 연대인 ‘사회’를 전제로 하는 ‘자조’가 전제되어야 ‘사회적 헌신’의 덕목이 성립된다. 즉 한국 최초의 노동자단체 조선노동공제회의 기관지인 ‘공제’에서 제시한 ‘노동존중’, ‘자조’, ‘사회적 헌신’이라는 근대 조선인노동자가 추구해야할 덕목은 유길준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고, 최남선에 의해 완결되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남이(2010), “1910년대 최남선의 ‘자조론(自助論)’ 번역과 그 함의: 「자조론(自助論)」 (1918)의 변언(弁言)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43.
- 김남이, 하상복(2010), “최남선의 「자조론(自助論)」 번역과 중역된 ‘자조’의 의미: 새뮤얼 스마일즈(Samuel Smiles)의 「자조(Self-Help)」, 나카무라마사나오(中村正直)의 「서국입지편(西國立志編)」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65.
- 김현주(2008), “‘노동(자)’, 그 해석과 배치의 역사: 1890년대에서 1920년대 초까지”, 「상허학보」, 20.
- 류시현(2009), “최남선 연구: 제국의 근대와 식민지의 문화”, 「역사비평사」.
- 선재원(2005), “차별과 성장: 조선인과 일본인의 노동구조”,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편,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삶과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 유길준·조윤정 편역(2012), 「노동야학독본」, 경성일보사(1908-국한혼용문).
- 윤진호(2012), “대한제국기 ‘노동회’의 성격과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 노동운동의 기원과 관련하여”, 「경제발전연구」 제18권제1호, 2012.
- 이근식(1999),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한길사, 1999.
- 이영석(1993), “자조: 영국 중간계급의 가치와 노동귀족”, 노명식 외, 「시민계급과 시민사회: 비교사적 접근」, 한울아카데미, 1993.
- 조경달, 정다운 역(2012), 「식민지기 조선의 지식인과 민중: 식민지 근대성론 비판」, 선인.
- 조윤정(2013), “노동자 교육을 둘러싼 지식의 절합과 계몽의 정치성: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 고찰”, 「인문논총」, 69.
- _____(2018a),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과 「노동야학」 비교 고찰”, 「구보학보」, 19.
- _____(2018b), “유길준의 「노동야학」 해제”, 「근대서지」, 17.
- 최희정(2004), “한국 근대 지식인과 ‘자조론’”,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2020), 「자조론과 근대 한국: 성공주의의 기원과 전파」, 경인문화사.
- 학부(學部) 편집국 편찬, 강진호 편역(2012), 「국민소학독본」, 學部, 1895(국한혼용문). 「동아일보」(1931.03.09.)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高橋昌郎(1988), 「中村敬宇」, 吉川弘文館.
- 中村隆英(2015), 原朗·阿部武司 편, 「明治大正史 上」, 東京大学出版会.
- George Allen & Unwin(1948), Cole, G. D. H., *A Short History of the British*

Working-Class Movement, 김철수 역, 장석준 감수(2012), 「영국 노동운동의 역사」, 책세상.

Kinmonth, Earl H.(1981), *The Self-Made Man in Meiji Japanese Thought: from Samurai to Salary M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広田照幸・加藤潤・吉田文・伊藤彰浩・高橋一郎 역(1995), 「立身出世の社会史」, 玉川大学出版部).

Smiles, Samuel(1902), *Self-Help: with Illustrations of Conduct and Perseverance*, John Murray.

_____ (2002), Peter W. Sinnema edited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Self-Help: with Illustrations of Character, Conduct and Perseverance*,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26), 中村正直 역, 「改定 西國立志編」, 博文館.

_____ (1906), 畔上賢造 역, 「自助論」, 内外出版協會.

_____ (1991), 中村正直 역, 「西國立志編」, 講談社.

_____ (2002), 竹内均 역, 「自助論」, 三笠書房.

_____ (2009), 中村正直 역, 渡部昇一・宮地久子 현대어역, 「自助論: 西國立志編 上・下」, 幸福の科学.

_____, 崔南善 譯說, 「自助論」, 新文館, 1918(국한혼용문).

_____ (2006), 장만기 옮김, 「자조론 인격론」, 동서문화사.

Modern Korean Worker's Ethos: Yoo Gil-Jun's Nodongyahakdokbon and Choi Nam-Seon's Jajoron, 1908~1918

Jae Won Sun*

Abstract

"Self-Help", the representative ethos for Korean workers in early modern period, were born and spread in Britain during the mature period of capitalism, Japan during the Meiji Restoration period, and Joseon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 'Self-Help' born in Britain was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progressive liberalism and its fundamental philosophy of utilitarianism, which seeks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of capitalism. In the Meiji era, when the old system collapsed, Japan was regarded 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formation of the new system. In Joseon, where the rule of the powers was spreading, it was initially regarded as the driving force for national self-discipline, but after World War I it was considered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formation of a "social" system.

Labor-Respect and Self-Help were first presented by Yoo Gil-Joon among the ethos that Joseon workers should pursue, presented on the 'Gonje', the organ of Joseonnodonggojehoi which was the Korea's first labor organization. Yoo Gil-Jun stressed that human beings who fulfill their rights and duties are dignified, that honest, sincere and industrious labor, regardless of the form of work, must enjoy freedom that is not morally out of place, and that these ethos are feasible through Self-Help, emphasizing worker discipline based on trust, order and competition.

However, Yoo Gil-Jun did not present "Self-Help" on the premise of "social," a voluntary personal solidarity, and was presented in the course of Choi Nam-Seon's explanation of "Self-Help." The ethos of "Social Service" is established only when Self-Help, which is based on the premise of "social," a voluntary personal solidarity, is assumed, not just an individual's success. In other words, the ethos of modern Korean workers, such as "Labor Respect," "Self-Help," and "Social Service," presented on the 'Gonje', the organ of Joseonnodonggojehoi

* Professor, Facul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yeongtaek University.

which was the Korea's first labor organization, were first presented by Yoo Gil-jun and completed by Choi Nam-Seon.

〈Key Words〉 Modern, Korean Worker, Ethos, Yoo Gil-Joon, Choi Nam-Seon,
Labor Respect, Self-Help, Social Service

